

구룡산과 청옥산 지역의 관속식물상

Vascular Plants of Guryongsan and Mt. Cheongoksan

호남대학교 생명과학과* ·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임동욱* · 김용식**

I. 연구목적

태백산 일대에 대한 식물상 보고는 백두대간 산림실태에 대한 보고(산림청과 녹색연합, 1999), 태백산 일대 종합학술조사 보고(이창복 등, 1987; 이우철, 1987)가 있으며, 태백산 인접지역에 대한 제 2차 자연환경조사 보고 등이 있다. 특히 태백산(1,560m)은 희귀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태백산 내 공군 폭격장이 있어서 인위적 교란이 심한 곳이다. 그러나 구룡산(1,344m)이나 청옥산(1,276.5m)지역에 대한 식물상 조사는 선행된 바 없다. 따라서 태백산 일원에 대한 생물 자원 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구룡산과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능선부 남측사면에 대한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조사 지역에 대한 관속 식물상 조사는 2001년 8월 및 9월 등 2회에 걸쳐 총 7일간 실시하였다. 식물상조사를 위해 현지 조사경로를 따라(Fig. 1) 모든 종을 야장과 채집을 병행하였고, 채집물은 표본화하였다. 완성된 석엽표본은 동정을 하여 정리하였으며, 관속 식물의 정리는 이창복(1980)의 대한식물도감의 Fuller의 Tippo방식을 채택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호남대학교 표본장에 보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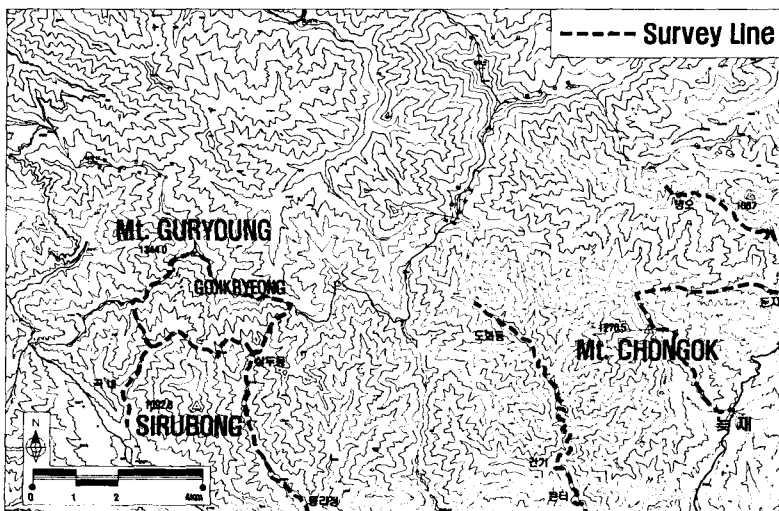


Figure 1. Map of the surveyed routes in studied areas

본 조사 범위는 태백산 지역 백두대간 중 도래기재-구룡산-곰님이재에 이르는 지역으로 주능선부 남측사면과 계곡 부에 해당되는 경상북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주된 봉우리는 구룡산 지역과 청옥산 지역이며 계곡부는 운곡천 상부 금당곡과 현동천 및 백천 지역 등을 현지답사를 하면서 조사하였다.

각 조사경로는 주요 등산로를 따라 계곡부, 계곡사면부, 사면부, 능선부 등 식물종의 주요 서식처가 가능한 다양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해발고도 100m 마다 주요 식생을 기술하였다.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은 위치(사면, 능선, 계곡, 해발고도 등), 출현종, 개체수, 분포면적, 토양 및 기타 생육조건, 위협요인, 주변임상 등을 기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구룡산, 청옥산, 현동천과 백천 지역에서 확인된 식물종은 96과 268속 349종 51번 종 5품종으로 총 405종류가 확인되었다. 태백산 식물상 조사에서 총 633종류로 보고된 것에(이우철, 1987) 비하면 종 수가 적다. 이는 초봄에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이른봄 식물이 누락되고 태백산에 비해 해발고가 낮은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2) 구룡산 지역 ; 서벽리-금당곡-구룡산-고직령-진조동(참새골)

서벽마을 주변은 소나무림이었으나 벌채한 후, 현재는 일본잎갈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그 수령은 약 5~10년생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잣나무를 식재하였다. 관목류로는 졸참나무, 싸리, 취, 인동, 개암나무, 산딸기 등이 확인되었고 임상초본은 고사리, 감국, 쑥 및 뱀무 등이었다. 금당곡-시루봉-구룡산에 이르는 산록부는 소나무와 신갈나무 및 졸참나무림으로 확인되었다. 소나무는 흉고직경 40~100cm이며, 높이는 15m정도였다.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은 20~40cm이며, 높이는 10~13m높이였다. 관목류는 쇠물푸레, 철쭉꽃, 미역줄나무, 노린재나무, 조록싸리, 두릅나무, 함박꽃나무 등이 분포하였다. 임상초본류는 마타리, 큰까치수영, 쑥, 노루오줌, 수리취, 은분취, 둥굴레, 기름사초, 지리대사초, 터리풀, 단풍취, 일월비비추, 샷샷나물, 산거울, 대사초, 삼주, 짚신나물, 오리방풀, 동자꽃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진조동 상부지역은 주로 사유림 지역으로 1970년대 후반에 잣나무와 일본잎갈나무를 식재한 상태였다.

(3) 청옥산 지역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거제수나무, 소나무, 잣나무, 벗나무, 피나무, 들배나무, 물박달나무, 함박꽃나무, 고로쇠나무, 느릅나무, 가문비나무, 신갈나무 및 까치박달나무 등이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관목류는 곱광나무, 조록싸리, 미역줄나무, 산딸기, 조릿대, 국수나무, 딱총나무, 오미자, 고추나무 및 쥐똥나무 등이 확인되었다. 임상초본류는 계비꽃, 꿀풀, 짚신나물, 뱀무, 마타리, 기린초, 관중, 쑥, 개망초, 달맞이꽃, 엉겅퀴, 큰까치수영, 동자꽃, 터리풀, 승마, 참취 등이 분포하였다.

청옥산 정상부 습지에는 도깨비사초, 구절초, 곤달비, 개시호, 범부채, 원추리, 꽃창포,

붓꽃, 원추리, 비비추, 매듭풀, 슬페랭이, 물레나물, 금낭화, 산옥잠화, 부처꽃, 독활, 동의나물, 속새, 하수오, 당귀, 점박이천남성, 긴잎갈퀴, 미꾸리늪시, 토현삼 등의 초본류가 많이 분포하였다. 고산 습지 우측 산록 주변은 잣나무와 일본잎갈나무를 병렬 식재하였다. 일본잎갈나무는 빠르게 자라고, 잣나무는 느리게 자라므로 조사 당일에 잣나무는 그 수고가 낮아서 속성으로 자란 일본잎갈나무의 가지에 의해 정아가 가리워진 상태였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서 잣나무는 쇠퇴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산습지에서 청옥산 정상부에 이르는 곳은 신갈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다.

(4) 희귀 및 멸종위기 종

조사 지역에서 환경부(1994)와 산림청(1996)에서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종을 확인한 결과는 구룡산 지역 1종, 청옥산 지역 2종, 현동계곡 지역 4종 및 백천 계곡 지역에서 2종으로 총 7종류이었다(Table 1). 그러나 목련은 식재종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희귀 및 멸종위기 종은 총 6종, 즉 관중, 꽃창포, 천마, 도깨비부채, 꼬리진달래 및 토현삼이었다. 태백산 지역에서 출현하였다는 희귀 식물로는 기왕의 보고에서(정태현과 이우철, 1965; 이우철, 1987) 주목, 노란만병초, 멧덕딸기, 태백말발도리, 바위괭이눈, 참바위취, 산토끼꽃, 들숨쟁이 및 꼬리진달래 등을 보고한 바 있지만 본 조사에서 주목(식재종), 참바위취 및 꼬리진달래(참꽃나무겨우살이) 3종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3종 중 현재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종은 꼬리진달래뿐이었다.

Table 1. List of protected plant species in the region of Guryongsan and Cheongoksan

Species	Guryong늪	Chongoksan	The valley of Hyundongchon	The valley of Backchon
<i>Dryopteris crassirhizoma</i>	○	○	○	
<i>Iris ensata</i> var. <i>spontanea</i>		○		
<i>Gastrodia elata</i> *			○	
<i>Magnolia kobus</i>			○	
<i>Rodgersia podophylla</i>				○
<i>Rhododendron micranthum</i>			○	○
<i>Scrophularia buergeriana</i>		○		

* :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1994)